

제 63 호

메이트

치유정원
'십자가의길 제31처'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사회복지법인 성모의마을

제 63 호

메아리

2020. 1



발행일 | 2020년 1월 10일

발행인 | 남금숙

편집인 | 편집위원

발행처 | 사회복지법인 성모의마을

우)32907

충남 논산시 상월면 선비로 1166

Tel. 041)732-2085, 0889 Fax. 733-0587

CONTENTS

03. 여는글

하느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 남금숙 원장

04. 거주인 글

다시가고 싶은 바다 / 거주인 권영○
꿈에 그린 유럽여행 / 거주인 최영○

06. 프로그램방

사회체험(영화, 스포츠, 공연, 쇼핑), 당일여행,
가족여행, 외식, 노래교실, 성탄행사

08. 보호자 글

드디어 여수로 출발~! / 이병○ 가족

09. 종사자 글

고령장애인 건강관리과정 교육을 다녀와서~ / 생활지도원 조영○

10. 알림방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기를 꿈꾸며~ 두 번째 이야기
(자치학교, 문화체험, 1박2일 일상생활체험, 단기체험홈)

11. 봉사자 글

힐링의 시간 / 대전성모병원 자원봉사자 류지○

12. 소식방

논산시지원공사, 촉탁의변경, 충남남부평생학습관 강사지원,
레인보우방송부 1주년, 지역사회봉사활동, 거주인·보호자인권교육,
개별서비스·사업평가, 정년퇴임, 해군참모총장 위문

14. 사진첩

성모의마을 이모저모

성모의마을 봉사와방문

16. 후원 및 봉사자 현황

18. 수입지출현황

19. 성모의기사수녀회

여는글

하느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 Maria



남금숙 원장

경자년 새해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성모의마을 가족들을 위해 기도와 봉사, 후원으로 함께 해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희망하는 것만으로 삶이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언제나 순간을 사는 것은 어렵지만 또 다시 새해를 맞이하며 희망을 가져봅니다.

지난해 성모의마을에서는 가족여행이라는 작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네 가족들이 함께 여행을 갔던 이야기가 작지만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무엇보다 장애로 인해 여행이 쉽지 않았는데 장애인콜택시가 있어 이동이 편리해
졌고, 가족들과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고, 평소에 접해보지 못한 음식들을 함께
나누며, 잊지 못할 선물을 가지고 돌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성모의마을에는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 가겠지만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고 끝맺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봅니다.

가족들의 이야기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의견을 묻고, 의논하고, 부탁할 수 있는
성모의마을이 되도록 기도와 봉사, 후원으로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인사로 늘 행복하십시오.^^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 주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들어 보이시고

그대에게 평화를 베푸시리라.”(민수6,24-26)

거주인글

다시 가고 싶은 바다



권영○ 거주인



무더운 여름 한국타이어 동그라미 봉사단과 함께 푸른 파도가 출렁거리는 무창포해수욕장으로 외출을 나갔습니다.

여름휴가를 온 많은 사람들... 넓고 푸른 바다위에 떠 있는 배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너무 시원해서 흐르는 땀도 잠시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바다위에 떠있는 배를 보니 배를 타고 바다위에 있으면 어떤 기분이 들지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울릉도가 고향인 저는 자주 집에 갈수 없어 배를 타 본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없습니다.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배를 타고 바다에 꼭 나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밖에 나와 바닷바람을 맞으니 배에서 출렁거리는 파도처럼, 배고픔이 요동쳤고, 때마침 봉사자분들께서 바다에 왔으면 회를 먹어야 한다며, 우리 일행을 횟집으로 이끌었습니다.

싱싱한 회와 시원한 맥주 한 캔을 마시니, 풍脯 찌는 무더위도 잠시 잊을 만큼 더위가 싹 날아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성모의마을로 돌아오는 길에는

직접 준비해 오신 맛있는 옥수수도 쪘서 먹고, 참 신나고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한국타이어봉사팀과 인연이 된지도 오래되었는데, 저희를 위해 귀한시간 내주시고, 밝은 미소로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번외출도 한국타이어봉사자분들이 아니었다면, 쉽지 않았을텐데, 많은 경험과 추억을 만들어주셔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날씨가 쌀쌀한 요즘도 그때가 그립고 내년에도 탁 트인 바다에 또 한번 가고 싶습니다. 정도 많고 미소가 아름다운 한국타이어 동그라미 봉사자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많은 추억 만들어요~



꿈에 그리던 유럽여행



최영○ 거주인



지난 일본여행을 시작으로 장거리 비행의 적응성을 위하여 작년 겨울 하와이에 다녀왔다. 3박 5일의 짧은 일정으로 내 체력과 적응력을 시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같이 간 직원의 도움으로 중간 일정에는 헬기를 타고 오아후섬 일주를 하였고, 마지막 날 저녁은 선셋크루즈를 통하여 아름다운 날씨와 훌라걸의 환대를 받으며 장거리 비행의 가능성을 마무리 할 수 있었다.

그렇게 겨울의 시작을 따뜻하게 한 후, 올해의 가능성을 진행하는 스스로의 시험을 곧 시작하게 되었다. 대전 소재의 여행코디를 통하여 연초부터 적절한 코스를 제안 받았고, 최종적으로 체코 프라하 등 동유럽 장거리 여행을 결정하였다. 코스는 프라하를 시작으로 약 2,200Km의 긴 여정. 휠체어 이용으로 쉽지 않은 여정은 초기 순수한 자동차 이동에서 기차와 자동차여행으로 변경되었다. 여행을 통해 국내의 휠체어 지원시설과 비교할 수 있는 소중한 체험이 되었다. 장거리 열차의 경우 리프트를 내장한 객실, 시내이동의 열차는 플랫폼에서 바로 탑승할 수 있는 환경은 충분히 나를 감동시켰다.

노상에서 운행하는 전차 또한 운전수의 램프 조작으로 쉽게 탑승과 하차를 할 수 있게 되어 큰 시간적 손실 없이 이동할 수 있었고, 이는 섬들의 도시인 베네치아 까지 이어졌다. 연중 항상 불비는 베네치아는 휠체어 이용자를 위하여 저렴한 비용과 함께 우선탑승 기회를 제공한다. 비가와서 여행을 즐기기에 약간의 아쉬움은 남지만 꽤나 활기찬 베네치아를 맛본 듯 하다.(빗속에서의 야외테라스 운영이

되지 않았으며, 램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허기 속의 1시간 늦은 점심은 안 비밀).

7박9일의 여정(3개국 5개 도시)을 간단히 서술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번 여행은 내 바램의 시작에 불과하다. 내 약해진 허리는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으나, 내 열정을 막을 정도의 방해요소는 아니다. 여정 마지막, 귀국편의 항공사 티켓팅 지상직원의 무뚝뚝함이 나를 자극하였지만(그녀를 피해 다른 직원으로 향했으나, 신은 나를 그녀에게 보내셨다), 나의 열정 까지 식히지는 못하지 않았는가...^^;

벌써 내년 여행이 기다려지고 설렌다.



프로그램

사회체험

• 영화관람

대전CGV영화관에 가서 평소에 보고 싶은 영화를 직접 선택하고, 팝콘과 콜라 등 먹고 싶은 간식도 직접 구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여한 거주인들은 역시 영화는 영화관에서 봐야 실감나고 더 재미있다며 만족스러워 했습니다. 곧 논산에도 영화관이 생긴다고 하니 많은 거주인들이 언제든 부담 없이 영화관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 스포츠

평소TV로만 시청하던 배구경기를 직접 경기장에 가서 관람한다는 생각에 거주인들은 며칠전부터 설레는 모습이었습니다. 경기장에서 선수들의 경기하는 모습을 직접 관람하고 관중들의 힘찬 응원소리는 현장의 분위기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야구경기 직관하려 고고~!!



• 공연

선선한 가을바람이 부는 10월 “신데렐라”라는 동화를 발레라는 장르로 공연을 하는 와이즈발레단의 발레공연을 관람하였습니다. 발레라는 공연이 생소하고 어떨까하는 궁금증으로 시작된 공연은 매우 흥미롭고 만족스러웠습니다. 공주 문예예술회관 측의 배려로 좌석을 무료로 초대해 주었고, 따뜻한 환대는 우리 모두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좋은 공연을 보고 돌아오는길 마음이 풍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 쇼핑

거주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쇼핑~! 본인의 취향과 욕구에 맞게 마음에 드는 물건을 직접 고르고 가격을 비교하며 물품을 구매하였습니다. 원하는 다양한 물품 구매로 쇼핑의 즐거움을 느끼고, 삶의 활력을 얻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처음 쇼핑할 때는 머뭇머뭇 고민하는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자신만의 스타일과 취향에 맞게 물건을 구입하는 쇼핑의 달인?이 되었습니다.



당일여행

당일 여행으로 바다가 보고 싶다는 참여대상자의 욕구에 맞춰 군산이라는 도시로 설레임과 기대를 안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처음으로 가본 군산은 참여대상자의 고향이기도 하고 감사하게도 저희 일행을 위해 시간을 내어준 보호자의 안내를 받으며 구석구석을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여행은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활력을 찾고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족여행

부모회 지원을 받아 지원된 가족여행프로그램에 이효○씨 가족이 여수일대를 여행하였습니다. 엄마와 가족에 대한 애착이 있었던 효○씨는 여행 일정이 잡힌 날부터 여행하는 내내 연신 웃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엄마와의 데이트를 오롯이 즐기며 행복해하는 모습에 어머니도 딸과의 여행에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쉽지 않은 여행길이지만 효○씨는 벌써 다음 여행을 꿈꿔봅니다.



외식

무더운 여름이 되면 찾게 되는 보양식, 한국인의 최애음식인 삼겹살과 중화요리, 그리고 생일이나 죽일이 되면 기관에서 제공하는 맛있는 음식이 즐비한 뷔페까지 다양한 외식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언제나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는 건 우리 모두를 기분 좋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거주인들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



노래교실

성모의마을 거주인들이 여느날 보다 흥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날이 있습니다. 매월 2,4째 화요일이 되면 킁짝쿵쿵~! 신바람 넘치는 노래강사님이 오셔서 노래교실이 진행됩니다. 많은 거주인들은 음악을 통해 위로를 받기도 하고, 즐거움을 통해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기도 합니다. 노래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함께 노래 부르며 즐기는 시간을 통해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성탄행사

한해를 마무리하기 전 가까운 곳에 살고 계시는 지역주민을 초대하여 성탄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거주인들이 1년간 갈고 닦은 밴드공연과 그 외 직원과 거주인들이 함께 준비한 다양한 공연, 주민들과 함께 노래 부르며 어울리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거주인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한해를 훈훈하게 마무리 하였습니다.



보호자글

드디어 여수로 출발!!

거주인 이병○ 가족

10월 27일 요셉3반 이병○, 가족(엄마, 누나)과 함께 여수를 향해 출발!

성모의마을 부모회에서 거주인을 위한 여행을 추진하신다고 어머니 연세가 많으신 병○이네를 추천해주셨다. 어머니 혼자 따라가시기에 무리가 있어 누나인 저까지 동행하게 되어 병○이, 엄마, 선생님, 기사님과 5명의 여행단이 꾸려져 이 가을의 절경인 단풍과 솔솔 바람을 가득 안고 여수로 향했다. 여수까지 2시간 30분의 여행이지만 이 짧은 여행에도 성모의마을 가족을 위한 선생님들의 세심한 손길로 준비물을 가득 차에 싣고 여행을 떠났다.

여행 떠나기 전, 우리 가족만이 아닌 기사님, 선생님을 대동해야한다는 부담감에 잠시 불멘 불평을 하기도 하고, 직장관계로 평일 1박 2일이 어려워 일요일을 끼고 계획을 세우니 장애인콜택시 준비가 어렵다는 말을 전해 듣고 여행을 취소하려하기도 했다. 그러나 늘 그랬듯이 성모의마을 계획에는 주님의 섭리가 함께한다는 것을 이번에도 깨닫게 되었다. 여행이 취소될지도 모른다는 연락을 받으신 장애인 콜택시 기사님이 휴일을 반납하며 함께 동행해주셨고, 일정이 너무 단순하다며 더 좋은 장소도 추천해주셔서 병○이가 즐길 수 있을 만한 여행지로 안내도 마다않으시니 정말 장애인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느껴져 한층 즐거운 여행이 되었다.

성모의마을을 출발해 3시간 만에 도착한 여수 바닷가, 가을이지만 따스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오랜만의 자유를 누리며 여수 아쿠아플라넷에 입장. 대형 수족관 속에 물고기 왕자의 이야기에 맞춰 인어아가씨들이 자유로이 춤추고, 거북

이, 상어, 각종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광경에 잠시라도 자유로이 헤엄치는 병○이를 상상해볼 수 있었다. 저녁 노을지는 풍경을 보려 여수 케이블카를 타기위해 휠체어를 끌고 11층 엘리베이터를 통과해 드디어 병○이가 꿈에 그리던 케이블카를 타고 이번에 하늘을 날아봅니다. 저녁 노을이 우리 비상의 배경이 되어주니 어떤 아름다운 명화도 부럽지 않은 자유의 몸이 되어보기도 합니다.

야경을 봄내는 돌산대교와 여수 앞바다의 풍경을 가슴에 가득 담고 내려오니 한 여름밤의 꿈을 꾸고 난 듯 몽롱한 1박을 향해 숙소로 향했습니다. 여수 앞바다를 품고 있는 장애인전용 객실은 휠체어가 쉽게 이동하도록 시설이 되어있어 편리하게 이용하기 좋았습니다. 병○이가 여행하는 내내 기저귀로 불편해해서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목욕을 시키려 하니 어느새 선생님이 목욕을 시키고 뽀송뽀송한 병○이로 만들어 놓으시니 선생님이 동행해야하는 이유를 새삼 느끼게 되네요. 더군다나 전날부터 장염 증세가 있어 먹거리가 편안치 않고 복통을 느끼면서 여행하셨는데 아픈 표시하나 없이 여행을 위해 애쓰시는 선생님을 보며 성모의마을 선생님은 아무나 할 수 없는 희생정신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느끼며 가족보다도 더 성모의마을 가족들을 사랑하고 돌봐주시는 은혜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50살이 넘어가면서 더욱 굳어가는 병○이의 몸과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성모의마을에만 의지하고 있던 누나로서 여행을 하며 내 동생에게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깨달음과 여행 동안 병○이와 풀었던 '풀꽃'시를 마을 가족들에게 선사하고 싶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보아야 사랑스럽다.

병○이 너도 그렇다.

성모의마을 가족들도 역시 그렇다.



증시자글

고령장애인 건강관리과정 교육에 다녀와서



조영○ 생활지도원

고령 장애인의 인권, 영양관리, 운동, 구강관리, 피부 관리, 보조기기 적용과 관리법을 배우게 되는 교육을 위해 서울 국립재활원에 가게 되었다.

항상 교육을 가기 전에는 무언가 큰 지식을 얻어 오리라! 하는 욕심을 가지고 가곤 했었는데 이번 교육 역시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했다.

흔히 장애를 가졌다고 하면 생물학적, 심리적으로 장애를 가졌다고 할 수 있지만 제가 소속된 시설에서는 그것 보다는 신체적인 장애로 활동이 매우 불편하신 분들이어서 운동프로그램과 구강관리가 과연 얼마나 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교육을 듣게 되었다. 한 마디로 별 의미 없는 교육이 될 것 같았다. 하지만 운동 프로그램시간에 강사에게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저희 기관은 전체가 뇌병변1급 중증장애인으로써 물건을 가지고 활동을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데 어떻게 서비스지원을 해야 할까요?”라고... 뜻밖의 강사님의 답변은 저의 융통성 없는 고정관념을 깨는 순간이었다. “너무 큰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눈동자를 마주쳐도, 손가락 하나만 움직였어도 매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큰 격려를 함께하면서 도전하고자 하는 생각을 들게끔 하는 것이 중요해요...” 순간 생각하니 너무 완벽하고 큰 것만 생각했던 것 같아서 사회복지사는 정말 창의적인 생각과 행동을 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구강관리에 있어서 삶의 질을 추구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특히 장애인들의 구강건강은 비장애인에 비해 매우 심각하고 치료비의 부담과 이동의 어려움이 치료받지 못하는데 비중을 많이 차지하여 무엇보다도 입안의 세균막이 그대로 있으면 구강질환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섭취를 하도록 해야 하고 구강내 500가지가 넘는 종류의 박테리아가 존재하여 환자가 가지고 있는 질환이 심할수록 구강 내 박테리아 수가 증가한다고 알게 되었다. 또한 증가하는 입안의 박테리아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까지도 한다는 강사님의 말씀에 더욱 놀라웠다. 거주인들의 전반적인 케어를 책임지고 있는 생활지도원들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더욱더 세심하게 칫솔질을 해 주어야겠다는 다짐도 다시 할 수 있었다.

교육을 통해 많은 깨달음이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두번째
이야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기를 꿈꾸며~

● 거주인자치학교

논산놀뫼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을 받아 2회(8.20/8.27)에 걸쳐 시설거주장애인 스스로 자신의 삶의 주체가 되어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갖도록 거주인자치학교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을 통해 자립생활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실제 자립경험 사례들을 들으며 자립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다.



● 문화체험

충남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타 지원으로 1박2일 동안(10.21~22) 거주장애인의 사회적 경험과 공동체의식을 높이기 위한 문화체험활동에 김윤○, 최명○씨가 참가하였다. 문화체험으로 여수 야쿠아플라넷과 순천만습지를 체험하고, 밤에는 여수밤바다를 보며 추억을 만들었다. 새로운 만남을 통한 첫 번째 여행이라 어색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대화도 잘되고 많은 정보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콜베아카데미 일상생활훈련

지역사회자립의 욕구가 있는 거주장애인의 자립 활성화를 위해 1박2일(12.4~5) 일상생활훈련을 제공하여 시설서비스에 의존하지 않고 일반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스스로 의식주를 선택하고 관리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저녁식사 준비를 하기 위해 논산에서 시장을 보고,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저녁메뉴로 수육을 맛있게 만들어 먹었다. 늘 도움만 받다가 직접 재료를 구입하여 요리도 해보면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 자립생활 단기체험

놀뫼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체험홈이 오픈되어 이○○거주인이 단기체험을 위해 2박3일씩 4주간 단기체험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입주하기 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낯선 생활에 대한 두려움이 컸는데 센터식구들의 도움을 받아 골탕 담기, 오락실 가서 가상운전 해보기, 영화 직접 선택하기 등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스스로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늘 시설에서는 직원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하다가 스스로 계획하여 생활해보니 어려움도 있었지만 체험 홈 입주를 통해 자립에 대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던 것 같다. 단기체험의 기회를 주신 놀뫼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



봉사자글

힐링의 시간

류지○

대전가톨릭성모병원 약제팀

작년 이맘 때 쯤이었다. 덥지만 따뜻했던 그 계절이 다시 돌아오니 성모의마을 거주인들의 미소와 다음을 기약하는 헤어짐이 떠오르며 나의 마음과 발걸음이 다시 그 곳으로 향했다. 그 동안 나도 많은 변화가 있어 약품조제실에서 근무하다가 약품을 구매하는 파트로 업무가 변경되었다. 조제실에서 성모의마을 처방이 나오는 날이면 긴장했듯이 구매파트에서는 2~3달에 한번 방문 날짜가 되면 미리 복용하는 약품의 종류와 개수를 꼼꼼히 따져 안전하게 약품을 입고시키고, 약품조제실로 약품 발주를 내 거주인들 약품을 안전하게 타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었다.

성모의마을 곳곳의 큰 창을 통해 들어오는 밝은 햇살과 그 분들의 맑은 표정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며 여전히 훈하게 우리를 대하는 거주인들이 오랜만에 보는 친구처럼 반기웠다. 몇 번 방문해봤던 경험 때문에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이곳에서 우리는 여느 때처럼 청소와 설거지, 음식 준비 등 봉사 활동을 조를 나누어 진행했다. 간식을 나누어 드리고 먹는 것이 불편하신 분들을 도와드리며 그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지 안부를 나누었다.

몇몇 거주인들은 거동이 불편하셔서 혼자서는 바깥에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 산책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나 또한 초록 나무와 꽃들로 정리되어 있는 예쁜 성모의마을의 앞마당은 마치 그림과 같아 좋아하지 않을 수 없다. 휠체어를 끌고 이번에는 성모의마을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녀 보았다. 내리막길과 오르막길을 지나 한참을 걷고 의자에 쉬기도 하며, 더운 여름이었지만 책도 같이 보고 이

야기를 나누며 산책로를 걷는 이 시간은 나에게도 바쁜 일상 중에 잠시 쉼표를 찍는 휴식이었다.

화장을 하며 얼굴을 예쁘게 단장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 비록 거꾸로 들고 계시지만 이곳에 있는 책들의 책장을 모두 넘기며 책을 늘 가지고 다니시는 분, 거동이 편하지는 않지만 다른 분들과 다르게 혼자서 휠체어 없이도 이곳저곳을 걸어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활동적인 분, 배식되는 건강한 간식보다는 좋아하는 특정 과자를 개인적으로 사서 늘 드시는 분 등 거주인들 한분 한분을 지난날에도 이렇게 함께 산책하며 만나고 대화하는 시간을 통해 알아간 것 같다. 의사소통이 쉽지 않은 분들도 산책하다 보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과정이 많지 않아도 눈 맞춤과 표정으로 이 시간을 함께 즐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곤 한다.

오늘은 검진팀장님께서 혈액검사가 필요한 거주인 한분의 피를 뽑아서 가기로 한 날이었다. 신선도 유지를 위해 우리가 떠나기 직전 혈액을 채취해야 했기 때문에 아침부터 우리가 떠날 때까지 오랜 시간 공복을 유지해야 하는 거주인분을 위로하고 안타까워하며 서로를 아끼는 모습에서 성모의마을에 입소하여 살아가는 거주인분들 사이의 가족 못지 않은 끈끈한 우정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매일같이 함께 해주시는 직원선생님들, 수녀님과 함께 이곳의 거주인분들의 표정이 생기 있고 밝은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성모의마을을 방문하고 돌아가는 길에 나도 그분들을 위해 봉사하는 시간을 내주었지만 나 또한 느린 여유와 밝은 에너지를 오히려 받는 감사한 힐링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닫고는 한다. 대전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어느 날 못지 않은 뿌듯한 토요일을 보냈다는 생각에 마음이 절로 따뜻해졌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성모의마을 약품 발주를 챙기는 날이면 특히, 함께 마주보고 웃으며 산책하고 간식을 먹던 거주인분들의 예쁜 얼굴 한분 한분이 떠오르며 흐뭇한 미소가 퍼진다.



소식방

기능보강사업

(옥상방수공사, 보일러실교체, 화장실공사)

건물노후화로 인해 비가 올 경우 옥상 누수로 거주 인생활공간인 방, 식당, 치료실에 빗물이 심하게 떨어져 많은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논산시 지원으로 옥상방수공사가 진행되었고, 화장실 수리, 보일러실교체 등 지원으로 저희 가족들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충남남부평생학습관 강사지원

충남남부평생학습관에서 교육배려대상으로 실시되는 손길 프로그램을 통해 9월~11월까지 총12회 치료레크레이션 강사를 지원받아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몸의 움직임과 운동의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에게 강사 지원을 통해 신체를 움직여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열정적이고 파이팅 넘치는 강사님 덕분에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신체의 움직임과 활동을 통해 더 건강해지는 가족들의 모습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부탁드립니다.



촉탁의변경



2008년부터 촉탁의로 근무하셨던 고효○ 선생님(전 성모병원 정신의학과 교수)께서 2019년 8월까지 근무하시고 퇴직으로 인하여 근무가 종료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한결같은 마음으로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신 고효○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성모의마을 가족 모두 기도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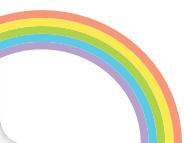


지난9월부터 논산하나병원 내과 임현○ 선생님께서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촉탁의로 새로 오셨습니다. 정성을 다해 가족들의 건강을 살피시는 선생님 덕분에 벌써 가족들은 진료일을 기다리기도 한답니다~^^

앞으로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레인보우 방송부 1주년

“와~우!” ^^ 레인보우 방송부가 1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랑으로 레인보우 방송부 색깔이 더욱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1,700여곡을 방송하였고,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1주년 기념 사진전을 개최하였습니다. 레인보우 방송부를 운영하며 임원들이 힘들고, 지칠 때도 있었지만 좋은 방송을 위해 언제나 힘을 내어 준 임원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음악을 통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도록 좋은 방송으로 보답 하겠습니다.



거주인·보호자 인권교육

인권에 대한 이해와 의미를 바탕으로 “거주장애인과 보호자가 함께하는 행복한 인권찾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인권교육을 통해 보호자와 함께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복지시설 내 삶속에서 인권 친화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개별서비스평가, 사업평가

거주인의 개별서비스평가와 사업평가를 통해 적절한 서비스가 수행되었는지, 부족했던 부분은 보완하여 더 날은 서비스 계획을 위하여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거주인의 욕구와 특성에 맞게 서비스진행 및 사업을 진행한 모든 직원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 내년한해도 우리 거주인 모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지역사회봉사활동

지역어르신들은 마을회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식사를 하며 친목을 도모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로 3년째 진행되는 지역사회봉사활동은 상월면에 있는 마을회관을 직원들이 방문하여 청소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 또 오는지 묻는 어르신, 맛있는 커피를 챙겨주시는 어르신, 점심을 해주겠다는 어르신. 우리가 도움을 줘야하는데 도움을 받아서 고맙다며 말씀하시는 어르신.. 많은 분들께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지역사회봉사활동을 통해 주변 어르신들도 만날 수 있고 저희의 작은 실천이 도움이 된듯하여 보람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년퇴임

가족들에게 영양가 있고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주신 조리원 두분이 명예로운 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가족들을 위해 애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퇴임은 제2의 인생의 출발이라는 말처럼 앞으로 여사님들의 멋진 인생이 펼쳐지길 성모의마을 가족 모두 응원합니다.



성모의마을 이모저모

7월



07.05 놀뫼중증자립센터 협약식



07.10 CGV 영화관람



7.16 거주인 소방안전교육



7.26 직원교육

8월



08.08 물놀이



08.21 위생교육

9월



09.04 감사나들이



09.20 외식

10월



10.11 거주인 독감접종



10.12 떠안축제



10.16 부페



10.30 소방종합훈련

11월



11.08 세이백화점 쇼핑



11.13~14 김장



11.19 직원교육



11.29 거주인·직원 영양교육

12월



12.13 투약관리 교육



12.24 지역사회초청 성탄행사



12.27 종무식

봉사와 방문 "감사합니다"

7월



07.08 노성중학교



07.11 LH토지공사 대전본부

8월



07.30 파랑새합창단공연



08.08 한국타이어 자녀봉사



08.09 인천해안성당



08.12 대건중학교



08.17 대전성모병원



08.31 궁동성당 배추파종

9월



08.31 한국타이어 배추파종



09.03 충청남도교육감 방문



09.06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 방문

10월



10.07 한국타이어 동그라미



10.16 반곡초등학교



10.24 해운정보화



10.28 광석중학교



10.30 은하수예술단공연

11월



11.09 궁동성당 배추수확



11.29 논산홈플러스



12.08 풀빵나눔봉사



12.12 한국타이어 송년회

12월



12.15 충청대학교 간호학과



12.21 직지 우쿨렐레 양양블



12.22 배재대학교 공연



12.24 해군참모총장 방문



사랑을 주신분들입니다

성모의마을에서는 매월 넷째 주일에 후원자님을 위한
감사미사가 봉헌됩니다.



신규 후원자 : 첫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김종숙.김혜정.노은동성당.대전더블유여성병원.민형란.배종찬.윤인식.이선영.정연희.진경덕

후원금 (2019년 7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까지)

(사)존경배려나눔회.(주)건축사무소이노건축.(주)대율.(주)대일소방.(주)라이온캡텍.(주)리드텍.(주)제넷바이오.(주)진미식품.(주)휴베나.궁골식품
영농조합법인.대건중학교.대림농장.대전성모기사회.대촌1리주민.대형환경(주).동덕엔지니어링.동수기전.법무법인둔산.성모의기사수녀회.아이
러브피플.월드카센타.이형섭복지재단.육군계룡사랑후원회.윤메디팜.정다운한의원.직원상조회.태양철물건재상사.하나병원.한국드라이베이링
(주).한국타이어.한국토지주택공사대전충남지역본부.해군정보화기획실

강대훈.강덕일.강명순.강신균.강애선.강영미.강영수.강인숙.강정미.강차중.강창희.강호정.고미옥.고순덕.고연승.고영숙.고태성.고효진.곽동용.곽
성훈.곽전구.곽태희.구자희.구청자.권기문.권상희.권수연.권순임.권연택.권은찬.권태형.기영진.길숙종.김경미.김경숙.김경임.김광한.김근태.김
기.김기철.김길자.김낙윤.김남순.김도희.김동일.김동화.김명식.김명중.김명화.김미선.김미숙.김미영.김미관.김병민.김복수.김복순.김봉
진.김봉희.김부덕.김상현.김석화.김석환.김선아.김선업.김선종.김선호.김성남.김성숙.김소영.김수복.김수자.김수현.김수희.김숙희.김순자.김시
문.김양숙.김양식.김양임.김연희.김영규.김영숙.김영식.김영우.김영임.김영자.김영택.김영희.김용구.김용철.김웅전.김윤미.김윤중.김윤하.김은
경.김은미.김은숙.김은정.김은주.김은형.김의승.김익현.김인겸.김인규.김인숙.김일우.김정란.김정숙.김정옥.김정하.김정호.김정희.김종대.김종
성.김종영.김종윤.김종학.김주영.김준.김준호.김진숙.김진식.김진아.김진연.김진자.김진팔.김진희.김창수.김창식.김창현.김철수.김춘달.김춘
자.김태만.김태운.김한주.김한준.김현곤.김현수.김현옥.김혜경.김홍순.김홍식.김희경.김희경.김희성.김희순.김희옥.나승준.나판균.남궁각.남금숙.남봉
우.남상숙.남순애.노광원.노덕영.노아네스.노애선.노영례.노은숙.노희숙.도인록.류관숙.류재율.류홍.모상선.목동균.문창규.민경식.민병학.민선
옥.민애란.박광천.박광필.박근수.박문평.박미나.박미희.박병삼.박병택.박서은.박선영.박선용.박선호.박성배.박순주.박승옥.박승현.박영숙.박용
성.박윤자.박윤희.박은숙.박은정.박응천.박점단.박정희.박종은.박종희.박주완.박준성.박지연.박진옥.박진홍.박찬무.박찬배.박찬주.박찬현.박찬
희.박창규.박창기.박준지.박해운.박해임.박현미.박현숙.박혜경.박효식.방계순.방성식.방연옥.방영자.배승호.배지명.배지영.백길종.백승준.백진
기.백혜린.변경봉.변혜숙.복진을.서경자.서광자.서교분.서교택.서기련.서단아.서영숙.서장원.서정석.서지연.선우환호.선희순.성상엽.성정모.성희
창.소성설.손경미.손동래.손석재.손세욱.손은숙.손형기.송관옥.송기성.송명옥.송영익.송인평.송재훈.수상덕.승병희.신경식.신미숙.신미순.신미
애.신상오.신숙희.신순자.신순현.신연화.신정자.신진호.신향순.신험철.신험신.심명옥.심복섭.안남순.안동숙.안명순.안문숙.안미훈.안상길.안성
호.안종희.안주영.양미경.양옥석.양인일.양태식.여완.엄기성.연제혁.염규홍.염명란.염미란.염윤자.염주란.오경순.오광순.오명선.오명화.오봉
학.오숙자.오연임.오웅수.오일교.오점숙.오주영.오주은.오준식.오준이.오한나.오현경.오혜원.오화진.온유진.용명임.우인자.우전.우정화.우제
준.원용희.원재화.원종철.유경희.유명기.유명희.유미.유부림.유석종.유선희.유양호.유영구.유영민.유영주.유영철.유이선.유인운.유재현.유향
옥.유혜영.육근홍.윤길중.윤문경.윤병숙.윤수자.윤순자.윤안례.윤여분.윤여직.윤여철.윤영광.윤영섭.윤영휘.윤옥자.윤완규.윤은화.윤재명.윤진
영.이강우.이경난.이경미.이경순.이경옥.이경자.이광수.이규옥.이기남.이기상.이다리야.이덕례.이도영.이도연.이동엽.이동호.이두화.이명수.이명
자.이미영.이민옥.이민표.이병숙.이병진.이복규.이상범.이상영.이상은.이선량.이성만.이성민.이성순.이성준.이성희.이수경.이수형.이숙희.이순
옥.이순조.이승남.이승훈.이연호.이연희.이영란.이영미.이영숙.이영임.이영희.이용구.이용규.이용규.이용호.이원길.이원웅.이월향.이유
미.이윤복.이은수.이은진.이은철.이인엽.이인한.이장.이장현.이장희.이재순.이재승.이재연.이전규.이정구.이정규.이정미.이정자.이존
오.이종규.이종숙.이주경.이준복.이진경.이진의.이진형.이중근.이치자.이택주.이한별.이해운.이해인.이향래.이현선.이현수.이현숙.이현희.이혜
숙.이혜영.이혜옥.이혜진.이호덕.이홍천.이화석.이화연.이홍재.임경수.임경옥.임덕순.임동훈.임문자.임미자.임민준.임범택.임상수.임서윤.임성
구.임세영.임재신.임찬욱.임향빈.임혜숙.장경수.장기욱.장동수.장명호.장미화.장선옥.장순자.장영희.장우상.장원재.장유창.장정숙.장진영.장진
희.장한순.전광운.전남숙.전선아.전연인.전용달.전창선.전혜련.전희선.정경미.정경순.정경애.정계순.정병호.정석임.정석환.정선미.정선주.정연

수.정영미.정영진.정우진.정은남.정은석.정은선.정은주.정재구.정지현.정지풍.정지현.정충희.정하양.정혜숙.정화숙.정환림.정훈경.조규정.조남옥.조마르타.조성혁.조숙자.조숙희.조영갑.조영록.조영홍.조영화.조옥분.조유성.조진.조한수.조현.주현우.지영옥.지영철.차옥남.차은.채경란.채미자.최관진.최덕화.최명희.최백석.최범순.최상윤.최상태.최선.최성근.최순옥.최영범.최영은.최영훈.최우연.최윤정.최인규.최인영.최재원.최정길.최주희.최해경.최혜수.최혜연.최효인.최희례.추현진.편재영.하영호.하옥경.하재영.하태천.한강섭.한동림.한명화.한상선.한상조.한선희.한원규.한치권.허신자.허홍근.현현섭.호승환.홍건표.홍광표.홍근선.홍명숙.홍성욱.홍승무.홍예인.홍윤정.홍은실.횡규성.횡규홍.횡명구.횡선주.횡선철.횡정희.횡대성.횡현숙

물품후원

(주)건축사사무소이노건축(김용구). (주)애경.갈매못성지.강영미.고은어버이집.광석중학교.궁골된장.노성중학교21기동창생.김기.김도희.김동민가족.김명례가족.김범호가족.김부식가족.김영자.김윤환.김정란.김정임가족(大).김원혁가족.김철주.김혜리가족.남상용가족.논산푸드뱅크.논산계룡축협.논산시청.논산홈플러스.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강일피에스.도룡동성당.문화원가족.박미란가족.박서용가족.박성수가족.박정선.박종덕가족.배미희.배재대학교.부여성당.삼복육가공.삼성화재.서은영.성낙순가족.성하푸드.소경숙.손선미가족.송인평.신순자.신옥자.영원한도움의성모수녀회.오복경.오세영가족.유승미.유이선.유희자가족.육은수.윤순도.윤희열가족.이경옥.이기환.이동기기족.이병석가족.이수민가족.이수호가족.이영숙.이은상.이원선가족.임동훈.임세영.임순선.장재희가족.장태산정육점.재단법인하나금융나눔재단.전혜선가족.조규훈.조윤숙.차옥남.최상태.최승범.최영현가족.최현주가족.충남공동모금회.충남교육청.충남논산계룡교육지원청.충남도청소년본부화재대책과.한국타이어.한마음약국.해군본부.윤원례.횡정희

※ 알림 - 혹시 명단에서 누락되었거나 표기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런 물품이 필요합니다!!"

| 생필품 |

세제, 고무장갑, 휴지, 성인용기저귀, 물티슈 등

| 식 품 |

과일 및 간식류

| 그 외 |

냉장고, T V, 청소기 등 생활가전제품

봉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 7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까지)

정기자원봉사팀

갈마동성당.계룡대근무지원단.계룡성당.궁동성당.김윤중가족.김종필가족.논산정신요양원.덕명동성당.도룡동성당.대교동성당.대형환경.반석동성당.백혜린.부여성당.삼성화재RC나누미.삼위일체성당.성모병원.안종찬가족.이창규가족.전민동성당.한국타이어동그라미봉사단.해군정보화기획참모부.홍윤정.빈첸시아.LH토지공사대전지역본부

그 외 봉사해 주신 분들

계룡성당.광석중학교.노성21기동창.노은동성당.대건중학교.대전한사랑라이온스.상월농가주부회.세종성프란치스코성당.신관동성당.연산중학교.인천해안성당.충청대학교간호과

이·미용봉사

김경순.오미애.이안미용실.한밭이발봉사단.

의료봉사

성모병원.연산치과

꽃꽂이봉사

이명숙(루시아)

공연봉사

반곡초등학교.배재대실용음악과.은하수예술단.직지우쿨렐레양상불.파랑새합창단

 **후원가입신청안내 (한사람 더 후원회원으로 이끌어주세요!)**

전화 또는 성모의마을 홈페이지(www.smo.or.kr)를 통해 후원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서, 전화, 지로용지를 이용해 주시고 가입 후에는 회원증과 함께 소식지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회원이 되시면 원하시는 분들께는 연말에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

 **후원금 자동이체 신청방법에 대하여**

은행에 가서 직접 등록하는 방법

아래 계좌 중 자동이체가 편리한 금융기관을 선택하신 후 본인의 통장, 도장, 신분증 등을 지참하시고 은행에 가셔서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모의마을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등록 및 변경시 참고)

폰뱅킹을 이용하는 방법

폰뱅킹을 이용하시는 회원님들께서는 해당 은행 대표전화(아래)로 전화하시어 상담원을 연결하여 본인 확인 후 아래의 계좌번호 중 자동이체 받을 계좌번호를 말씀하시면 등록이 됩니다.

 **후원계좌번호**

법인후원계좌번호

- 농 협 461058-51-011210 (대표전화 : 1588-2100)
- 국민은행 457-25-0005-696 (대표전화 : 1588-9999)
- 하나은행 663-113251-00105 (대표전화 : 1588-1111)
- 신한은행 100-009-187570 (대표전화 : 1577-8000)

- 예금주 -
성모의마을

시설후원계좌번호

- 농 협 351-0762-7852-13 (대표전화 : 1577-2100)

 **후원금수입지출현황 (2019년 07월 01일 ~ 2019년 12월 31일 까지)**

(단위 : 천원)

수 입 내 역		지 출 내 역	
과 목 명	금 액	과 목 명	금 액
이월금	232,467	급여	46,892
지정후원금	-	제수당	13,022
비지정후원금	133,343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5,753
		사회보험부담비	7,448
		기타후생경비	2,018
		기관운영비	400
		회의비	820
		여비	298
		수용비및수수료	6,222
		공공요금	4,585
		제세공과금	1,258
		시설비	36,731
		시설장비유지비	3,653
		연료비	5,240
		사회심리재활사업비	1,475
		생계비	3,180
		차량비	970
		자산취득비	10,857
	365,810	합 계	150,822

콜베 성인의 영성을 살아가는 성모의기사수녀회에 초대합니다.



[창립]

본 회는 1917년에 로마에서 원죄없으신 성모의 기사회(Militia Immaculatae:M.I)를 설립하신 성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의 유지를 받은 미에치슬라오 미로하나 신부에 의해 1949년 일본 나가사끼에서 창립되어 M.I의 정신으로 사는 수녀회입니다.

[정신]

성 막시밀리아노 콜베의 정신에 따라서 원죄없으신 성모님께 모든 것을 봉헌하고 성모님에 의해, 성모님과 함께, 성모님을 통하여 예수성심의 왕국을 전파하기 위해 기도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사도직]

일본, 폴란드, 한국에서 M.I의 정신으로 사회복지, 의료, 교육, 출판사업과 한국에서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성모의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소자모임> 매월 넷째 주일 오후 2시

문의 : 041-732-3583(수녀원) 041-732-2085,0889(사무실)

성소담당자 : 010-3399-3583

주소 : 충남 논산시 상월면 선비로1166(대촌리 122-1) 우)32907

* 성소상담 수시 가능

홈페이지 : www.fsomik.co.kr

성모의마을 찾아 오시는 길

>> 서울 수도권에서 찾아올 경우

천안~논산간고속도로 → 정안IC<22.2Km> 약40분 소요 → 공주 · 논산방향(국도23번)

→ 유평교차로 신원사방향(지방도로697) → 연산방향(지방도로697번) → 대명초등학교(1.5Km) → **성모의마을**

>> 대전 영남권에서 찾아올 경우

서대전IC<40Km> → 대전~논산간(국도1호선) → 연산검문소(우회전), 연산삼거리에서(12Km)

→ 상월방면(697번 지방도) → **성모의마을**

마이리에 개재된 사진은 본 보호자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01 871845 0 15 2101는
671 0 2...

41360 67141414.

MODA Outlet

삼성화재 RC나누미와 함께하는
가을 나들이

▲ 주제: 사회복지법인 마동
▲ 일정: 10월 16일 목요일

▶